

우리 시대 다큐멘터리의 창은 흐리다

국내 건축계의 실태와 전망

전 진 삼 · 건축비평가 | 간향 미디어랩 GML 소장

‘넘버원’과 ‘명품주의’의 사이에서

“건축은 우리의 리얼리티를 드러내는 다큐멘터리의 창이다” 20세기 후반 건축이론과 디자인계의 인상 깊은 자취를 남긴 건축가 이그나시 대 솔라 모랄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달 이화여대가 대강당 앞 광장과 운동장 지하에 짓기로 한 2만 평 규모의 ‘이화캠퍼스센터’ 국제설계경기 공모에 자하 하디드, FOA, 도미니크 페로 등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세 팀의 건축가집단이 지명설계자로 참여한 결과가 발표되어 화제를 모았다. 결과는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 설계자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도미니크 페로가 최종 선정되었다. 그의 제출안은 길이 250미터, 폭 25미터의 캠퍼스 계곡을 만들고 그 양 옆에 3~5개 층의 공간이 들어서는 여성성을 상징하는 프로젝트였다.

특이하게도 이 국제설계경기는 국내 건축가 어느 누구도 지명설계자로 초대받지를 못한 프로젝트이기도 했다. 대학이 세계 정상급의 건축가 중심으로 설계경기를 한다는 ‘명품주의’를 발동한 까닭이다. 어느덧 건축명품을 선호하는 시류가 기업에서 대학까지 뻗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내 건축가를 끼우는 것이 기회부여의 형평성 문제라면 글로벌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판단이 하나고, 국내에 세계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건축가가 없다는 판단이 둘이고, 초대는 안했더라도 어차피 공모단계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국내 설계사무소하그의 연대가 불가피하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판단이 셋이고, 혹 어렵사리 국내 팀 하나를 끼어놓았더라도 선정배경에 잡음이 일면 오히려 불편해

진다는 것이 넷이고 등등 가히 어렵지 않게 추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더라도 국내 건축가 사회가 섭섭해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반응이었다.

올 가을 개관 예정으로 수년간 한남동에 지어지고 있는 삼성그룹의 문화단지 야심작 H프로젝트의 경우도 렘 콜하스, 장 누벨, 마리오 보타, 테리 파렐 등 세계정상급 건축가들만의 잔치라는 점이 그 내용의 진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축가들에게는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던 차에 여자대학에서 발주하는 소위 문제적 건축프로젝트가 뒤흔친 것에 외국인 건축가들만이 중용되고 있는 현금의 사태는 건축계 내부시각으로 보았을 때 무력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것이다.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주제의 프로젝트에 누구 한 사람 초대받지 못하는 국내 건축가의 위상만 놓고 보면 한심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더 이상의 불편한 심기는 감출 일이다. 나름대로 대학당국도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거니 생각할 일이다. 남의 집 잔치상 앞에서 콩나라 말나라 하는 격이다.

우리 건축가들도 드물게나마 외국의 설계 프로젝트에 초대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승효상(이로재 대표)은 중국 ‘BOAO Canal Village’의 책임 건축가로 그곳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으며, 얼마 전엔 기라성 같은 외국 건축가들 중 한 팀으로 지명 초대되어 신도시설계 공모에 출전한 바 있다. 김영섭(김영섭도시건축)도 중국에서 某 기업이 발주한 지명설계에 초대되어 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결과는 현지 사정으로 당선작 없이 초대된 전원이 공동으로 4등상을 받은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다. 또한 (주)희림건축은 중국 시안의 1백만 평 신도시개발 설계수주권을 거머쥐어 화제가 된 바 있으니, 비록 이들의 주 활동무대가 중국이라는 시장의 한정성은 있지만 그곳에서 한국건축가 및 설계사무소의 위상이 공고해지고 있음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또한 제갈 엽(에이마 건축)과 조병수(몬타나주립대 교수, 조병수건축연구소)의 경우에는 각각 프랑스와 캐나다를 오가며 현지에서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장운규(건축실험아틀리에)와 조민석(Mass Studies) 등과 같은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걸쳐 있는 건축가들은 국내와 외국을 연결하

는 설계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국내외 프로젝트의 경계지점을 점진적으로 지워나가고 있는 것도 한 현상으로 읽히고 있다.

그렇더라도 이것은 극히 일부에게서 발견되는 제한된 여건의 변화임에는 틀림없다. 아직도 건축설계시장 전반은 국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다.

일부에서는 우리 건축가들을 외국으로 홍보하는 과업을 - 국내에도 버젓히 건축계를 대표한 기존의 3단체 및 새건축사협회까지 그 같은 업무를 감당할 기구가 없는 것은 아닌데 - 민간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아직까지는 어떤 경로를 소개되는 건축가들의 면면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속타는 현실이기는 하지만,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야 백배 낫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일이다.

그만큼 세계의 벽이 높다고 보자. 단순히 의욕만 가지고 설계시장의 국외확장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찌감치 외국시장 진출을 체념하고 국내시장만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는 건축인들은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는 객관적 시선의 날카로움에 있어서 현명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하므로 한정된 국내 설계시장은 치열하기가 그지없다. 문제는 치열할 뿐 객관적이고 투명한 프로세스와 평가를 제1의 덕목으로 삼는 국내 시행설계경기 공모전 당선작들의 디자인 경향을 일별해보면 대체로 국내시장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통하기가 어렵겠다는 결론에 이를 정도다. 애써 실험성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쳐도 - 그것은 이미 공모지침에서 배제되기가 일쑤이지만 - 설계경기

의 당선작들은 독창성보다는 보편성에 시선을 맞춘 듯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를 찾기가 무척 어렵다.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겠지만 국내에서조차 과감한 디자인 전략을 수행해보지 못한 이들이 바깥세상에서 무엇으로 경쟁을 하겠는가 말이다. 우리 건축계의 큰 문제는 너무나도 현명한 디자인 결정권자들이 많다는 점이다.

그러하기에 당선을 전제로 하지 않는 넘버투(No. 2)를 향한 집념의 결실들이 존중되고, 결과와 관계없이 그들의 건축생각이 회자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오히려 아쉬울 때다.

건축저널리즘의 희생이 요구된다

2003년도 건축계 동정을 종합적으로 리뷰할 기회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 건축저널을 통해 지난 1년간 국내에 소개된 외국 건축가 또는 건축설계집단 및 건축계 동정에 대한 분량과 그 기획의 꼼꼼함이 우리 건축가들의 소개 기사 혹은 작품편람과 상당한 수준차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보 공유가 손쉬워진 세태이거나 하면 그만이었지만 소위 한국건축잡지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저널들 대부분의 경향이라는 판단이 서고 보니 걱정과 불안이 커졌다. 일부 기획물을 제외하고는 각 저널이 일정한 편집의도와 개념을 가지고 집요하게 독자들의 시선을 붙잡으려는 태도가 읽히지 않는



'이화캠퍼스센터' 국제설계경기 공모



승효상(이로재 대표)씨가 책임건축가로 있는 중국 'BOAO Canal Village'

2003년 이후 각급 지자체에서 '고품격도시로의 재생'이란 정책의 수립으로 도시의 가치를 제고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그에 따라서 몇몇 도시에서는 MA(Master Architect) 제도를 기초로 하는 공공건축가가 속속 출현하고 있고, 이후에도 계속 등장할 조짐이다.

그에 따른 도시재생 프로그램들이 중요하다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하므로 좋은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선형적 사례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공공건축가 제도가 능사는 아니지만 기왕에 도입한 제도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초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한 마디로 건축저널리즘의 통속화, 상업주의화가 지배적인 인상이었다.

우리는 흔히 우리 건축가의 스타제조기로서 건축저널의 한 기능을 입에 담아왔다. 그러나 어느 편집자의 말에서처럼 건축저널의 현재는 생존의 극점에서 시달리고 있기에 독자들에게 제조차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국내 건축 또는 건축가의 특집기사로 지면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황의 설명이다.

비교의 대상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건축과 이웃한 미술장르의 월간지 『ART in Culture』가 보여주는 편집태도가 부러울 정도이다. 그 하나의 매체를 10종 가까운 월간지 건축저널 어느 하나도 비교대상으로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은 비극적이기까지 하다. 잡지를 운영하기는 건축이나 미술이나 매양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건축저널로 보아서는 고집스럽게 우리 건축의 현재와 미래를 견인해주려고

애쓰는 매체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앞서 소개한 미술저널의 편집구성안을 일일이 대조하며 분석된 내용을 정리하기엔 지면 성격상 어울리지 않아 접어두기로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건축저널의 대부분에서 우리 건축의 현재와 전망을 아우르는 편집자의 기획력과 태도의 결핍에서 기인하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소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소재를 가공하는 능력의 부재를 지적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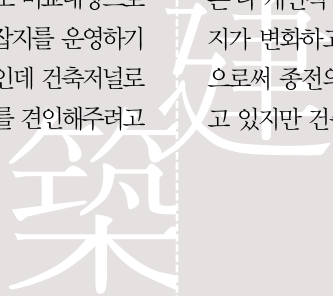
우연한 기회에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 『Casa Brutus』 특별호(2002년 9월호, 통권 30호)를 받아보면서 가졌던 느낌은 신선한 것이었다. 그 잡지는 일·영문 병기판으로 '안도 타다오와 함께 하는 여행(The Grand Tour with ANDO)'라는 너무 유명인사를 다뤄 진부할 수도 있는 단일 주제로 164쪽에 걸쳐 그의 건축세계관, 건축여행에서 만나는 건축적 사건 등을 실어내는 기염을 토해냈다.

편집디자인 측면에서도 영문이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 건축저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본문 전체에 영문을 끼워 넣는 형식이 아닌 본문 중 되도록 섹션 후미의 특정 대수에 제한적으로 요약된 영문 부록을 끼어 넣는 자국의 독자를 우선 배려하는 태도 또한 보기에 좋은 것이었다.

안도 타다오가 파리, 뉴욕, 로마, 오사카 등지에서 경험했거나 하고 있는 건축적 사건들을 추적해 들어가는 편집방식을 통해서 안도의 글로벌 경쟁자로서의 위상을 재정위 시키는 등 저널리즘의 기술적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잡지가 건축전문지가 아니라 'Life Design Magazine'이란 소타이틀이 명시하듯 고급문화교양지라는 점이다.

이미 우리 건축저널은 건축전문지로서 고급문화교양지를 선언하고 있는 다종의 여러 매체들에 비해서조차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 볼 일이다.

최근의 『SPACE』(공간)지의 변화를 보면서 특히 국내 건축저널리즘문화의 실종에 대한 의협심 같은 심사가 끼어드는 것은 나 개인적인 이력과 무관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나마 그 잡지가 변화하고자 하는 편집태도의 일단을 솔직하게 드러내줌으로써 종전의 『공간』지와 현격한 시각차의 선명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건축의 내적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어깨에 실린 짐



을 벗어버린 듯한 태도에서 그 잡지의 신화성과 현재성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하튼 변화는 지금 이 시대 건축저널에게 던져진 생존의 방법론임에 분명하다.

이같은 일련의 이유가 불을 지핀 탓인지 몰라도 우리 건축계에 하나의 흐름이 주목되고 있다. 오래전에 등장한 건축설계사무소의 홈페이지 운영은 이미 낡은 얘기가 되어버렸고, 2004년의 개막과 함께 대형 설계사무소를 중심으로 오프라인상의 자체 저널을 발행하고 있는 것이다.

(주)정림건축이 『JungLim Architecture 2004 Works』를, (주)희림건축이 『Heerim Architecture 2003 Works』를 발간했다. 각각은 자사의 2003년도 수행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설계사무소 디자인 경향성을 전문비평가를 에디터로 초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해 놓음으로써 기록과 진단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획득하고 있음은 물론이려니와 전문 건축저널에 기대지 않는 독자적인 저널리즘을 운용하려는 태도로까지 읽히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흐름이 우리만의 독자적인 발상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미 외국의 설계집단들이 발행해온 『S,M,L,XL』, 『MVRDV』, 『SOM Journal 1』 등 선행자료들에서 필요성을 공감한 결과이다. 그렇더라도 기존 국내 건축저널의 매력력에 위기를 저들이 감지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도시재생 프로그램과 공공건축가 제도의 상생(相生)

지금 '세계의 도시는 리모델링 중'이다. 베를린의 시가지도, 상하이의 시가지도 우리 도시의 비전을 훨씬 능가하는 빠른 행보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저들의 속도를 따라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다행이라면 도시의 재생이 속도계로만 측정되지 않는다는 데서 찾을 수 있음이다. 그러나 국가 성장 동력을 IT 산업에서 찾고 있는 우리 형편상 도시의 재건축이 중요한 화두로 던져질 리 만무하다. 그것은 늘 있어왔던 것이며, 정략적 수단으로 언제든 새로운 도시는 만들 수 있다는 관점에서 쉽게 간과되어 왔다. 최근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발표한 바 있듯이 전국적으로 100만 평 규모의 신도시 50개를 개발한다는 발상이 계속되는 한 말이다.

2003년 이후 각급 지자체에서 '고품질도시로의 재생'이란 정책의 수립으로 도시의 가치를 제고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그에 따라서 몇몇 도시에서는 MA(Master Architect) 제도를 기초로 하는 공공건축가가 속속 출현하고 있고, 이후에도 계속 등장할 조짐이다.

이른바 도시에서 벌어지는 건축을 포함한 전체 환경디자인의 조정자로서 그 역할이 기대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 많은 시행착오의 개연성이 상존하듯이 서울 뉴타운 시범사업의 경우에서도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기가 무섭게 MA의 실패담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이는 제도의 기대치와 달리 주민과 엔지니어링 회사와 행정 사이에서 건축가의 전문성이 공중에 뜨는 데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개발이 지속적인 관찰과 서비스를 통한 점진적 개발이 아닌 보다 높은 수익모델로 치환되는 세상의 논리 속에서 MA로서 건축가가 설 자리가 그만큼 좁아짐으로 불거진 사태였다. 속을 들여다보면 MA가 주민간의 조정과 협의과정을 담보하는 과정에서 계획내용의 변경과 주민과의 마찰, 행정의 불신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킨 데서 기인한 것이지만 행정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의 설정 없이 MA로 하여금 주민의 방패막이쯤으로 위상을 정한데서 온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광역시급에서 도시재생의 원칙을 세우고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현상이지만 성급한 제도의 도입과 책임을 피해가는 행정편의적 발상이 근절되지 않는 한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어온 수십 년의 시간동안 도시별 구도심의 생활환경 여건은 낙후된 채 기피되어왔다. 그에 따른 도시재생 프로그램들이 중요하다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하므로 좋은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선행적 사례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공공건축가 제도가 능사는 아니지만 기왕에 도입한 제도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초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